공군 제1전투비행단 소속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편대가 진도대교 상공을 비행하고 있다. T-50기는 지난달 31일 고흥 나로우주센터 레이더 성능 시험을 지원했다. 〈광주일보 자료사진〉

나로 우주센터, 국산 초음속기 T-50 대상 레이더 성능 검사

"황금독수리 추적 이상無" 이젠 위성발사만 남았다

"황금 독수리를 추적하라"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는 고흥 나로 우주센터가 지난달 31일 우주발사체 역할을 대신한 국산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골든 이글)을 대상으로 추적 레이더 성능검사를 실시했다.

광주 제1전투비행단에서 이륙한 T-50은 고흥 우주센터 상공을 거쳐 우주센터의 추적소가 있는 제주도까지 약 30여 분을 비행했다.

나로 우주센터는 T-50의 급격한 고도 및 경로 변화에 대한 추적을 통해 레이더 성능을 점검했으며 고흥 및 제주도 레이더 간의 연동기능을 검증했다.

이번 추적 레이더 성능점검은 나로 우주센터 건설 및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이 지난 6월 공군에 지원을 요청함에 따라 이뤄졌다.

특히 김은기 공군 참모총장도 이날 고흥군 나로 우주센터를 방문, 추적 레이더 성능점검 상황을 지켜봤다. 김 총장은 이 자리에서 나로 우주센터의 성공적인 완공을 기원하는 한편, 위성발사 임무와 관련한 공군의 아낌없는 지원을 약속했다.

나로 우주센터는 국가우주개발 중장기 기본계획에 따라 국내위성 발사장을 확보하고 인공위성 발사체 개발을 위한 성능시험 수행을 위해 고흥군 봉래면 예내리 하반마을 일대 약 150만평 규모 부지에 건설중이다.

/고흥=대성수기자 dss@

학교폭력 크게 줄었다

올 485명으로 전년동기보다 54% 감소

올 들어 학교폭력이 크게 줄었다.

전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3월12일부터 6월11일까지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총 485명(167건)을 적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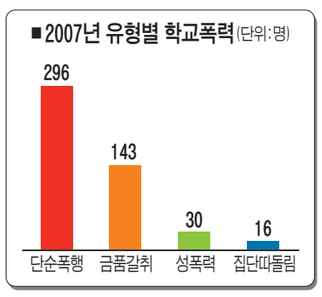
경찰은 이 가운데 12명을 구속하고 362명을 불구속 입건했으며, 65명을 소년부로 송치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1천58명에 비해 54% 줄어든 수치다. 특히 이 기간 동안 접수된 학교폭력 피해 신고 학생은 410명(136건)으로, 전년 동기간 500명에 비해 18%로 감소했다.

지난해 학교폭력의 절반 이상(67%·600명)을 차지했던 중학생 학교폭력 비중이 올해는 43.3%(188명)로 줄면서, 고등학생 학교폭력 비중(56.5%·245명)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

다만, 고등학생 폭력도 전년 405명에서 올해 24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학생이 74.4%(361명)로 여학생 25.5%(124명)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유형별로는 ▲단순폭행 61%(296명) ▲금품갈취 29.9%(143명) ▲성폭력 6.3%(30명) ▲집단 따돌림 3.3%(16명) 등 순으로 분석됐다.

한편, 전남경찰청은 올 들어 ▲경찰관의 학교출강 범죄예방교실 1천1회 ▲휴대폰 문자 선도 인원 428명 ▲피해학생에게 사과편지 보내기 226명 ▲전단·스티커 8만2천208매 배포 등 학교폭력 예방에 힘써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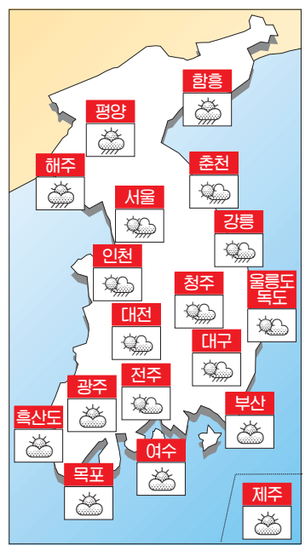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아침 안개 조심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구름이 많이 끼겠다.

8월 1일 (음 6월 19일) ◇전국날씨

광 주	구름 많음	24~34℃
목 포	구름 많음	24~31℃
여 수	구름 많음	24~29℃
완 도	구름 많음	24~33℃
구 례	구름 많음	24~34℃
해 남	구름 많음	24~33℃
장 흥	구름 많음	23~33℃
고 흥	구름 많음	23~32℃
순 천	구름 많음	22~34℃
영 광	구름 많음	25~32℃
진 도	구름 많음	24~34℃
전 주	차차 흐려짐	24~33℃
남 원	차차 흐려짐	23~34℃
흑산도	구름 많음	23~29℃



서해남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1.5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1.0~2.0m
남해서부
앞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먼바다=남서~서풍 파고 0.5~2.0m

목포 밀물 03:44 15:48 썰물 09:01 21:06
여수 밀물 10:36 23:04 썰물 04:33 16:33

▲해뜸 05:41 ▲해짐 19:36 ▲달뜸 21:03 ▲달짐 07:44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2(목)	3(금)	4(토)	5(일)	6(월)	7(화)
날 씨						
최저/최고	24/32	25/33	24/33	24/33	24/32	24/32

태풍 '우사기' 3~4일 한반도 영향

찜통더위 계속…광주·전남 8일째 폭염특보

지난달 29일 괌 북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5호 태풍 우사기(USAGI·일본어로 토끼)가 3~4일께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태풍 우사기가 3일 일본 가고시마 220㎞ 부근 육상까지 진출하면서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겠다"며 "제4호 태풍 마니(MAN-YI)보다 우리나라에 더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우사기는 현재 ▲중심기압 970hpa ▲최대 풍속 시속 120㎞ ▲강풍 반경 350㎞의 중형급 태풍으로 시속 15㎞의 속도로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편 1일 광주·전남지역은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낮 최고기온이 29도에서 34도까지 올라 8일째 폭염특보가 유지되는 등 더위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 관계자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겠고, 해상에서는 돌풍을 동반해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 사고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쟁고아의 쉼터 광주 '충현원' 역사체험·교육의 장으로 복원

국내 현존 보육원 가운데 가장 오래된 광주시 남구 양림동 '충현원'(忠峴院)이 한국전쟁의 참상을 알리는 역사체험과 교육의 장으로 복원된다.

광주시는 지난 달 31일 "사업비 8억원을 들여 6·25 한국전쟁 당시 전쟁고아 보육시설인 충현원 건물 6채(550㎡)를 복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충현원은 전체 부지 5천여㎡ 가운데 1920년대에 건립된 과수원 건물 2채와 1950년~1960년대에 건립된 벽돌건물 4채 등 모두 6채로 이뤄져 있다. 현재는 50·60년대 건립된 건물 4채만이 일부 보수를 거쳐 어린이집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과수원 건물 2채는 방치돼 있는 상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기본계획을 마련한 뒤 실시설계 등을 거쳐 내년 5월 복원공사에 들어가 2009년 상반기 마무리할 계획이다.

1949년 선교사 로버트 윌슨(Robert M. Wilson)이 사택에서 40여명의 아이들을 돌보던 것이 계기가 된 충현원은 1952년 고(故) 박순이 여사가 충현영아원을 설립하면서 본격적으로 운영됐으며 1957년 충현원으로, 1979년 호남사회봉사회로 이름이 바뀐 뒤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보육시설이면서 선교사(宣敎史)적으로도 가치가 큰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10여년 넘게 방치되다시피 했다.

시는 충현원을 해외 입양자 가족 등의 방문시 어린시절 체험관과 숙소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해외입양관련 자료 전시관, 선교사회 복지기념관 등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복원될 경우 전쟁 참상에 대한 체험과 교육의 장, 해외입양에 대한 이해증진, 국제교류 활성화 등 민주인권도시 광주의 이미지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국전쟁 참전 용사인 조지 F 드레그(77·미국 벨링햄 거주)박사가 기증한 6·25 전쟁 관련 희귀자료 2천여점도 별도의 공간을 마련, 전시된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35조원 첨단 조선기술' 中에 유출될 뻔

국정원 4명 검거

35조원 상당의 국내 선박·조선소 건조 기술을 중국으로 유출하려던 전직 조선업체 기술팀장 등이 국정원에 적발됐다.

국정원은 국내 조선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리려 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D조선업체 전직 기술부장 엄모(53)씨 등 4명을 붙잡아 서울 남부 지검에 넘겼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현호)는 이날 엄씨를 구속 기소하고, 회사 산업기밀을 빼돌려 경쟁 업체에 제공한 혐의(부정 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선업체 H사 전 직원 고모(44)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엄씨는 D사의 기술기획팀장으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1월 20일부터 한 달간 회사 지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공정도, 설계완료 보고서와 선박 완성도 등을 미리 준비한 외장형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빼돌렸다.

기술관리 총 책임자로 사내 지식관리시스템 서버에 접속할 권한이 있던 엄씨는 손쉽게 기술을 빼낸 뒤 지난해 3월 퇴사해 9개월 만에 국내 선박 설계 전문업체인 M사의 부사장으로 입사했다. M사는 중국 칭다오시와 합작으로 160만㎡(약 50만평) 규모의 조선소 건립을 추진 중이며 엄씨는 회사 측이 중국에 선박 설계 목적으로 설립한 자회사의 책임자로 이달 하순께 출국할 예정이었다. /연합뉴스

한약재 수은 오염 국산이 더 심각

수입 한약재의 중금속 오염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수은 오염도는 국산이 더 심각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31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정진영 연구원이 2005~2006년 동안 한약재 600개의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농도를 모니터링한 결과 수은 기준을 초과한 약재 13개중 절반 가량인 6개가 국산이었으며, 수은 농도가 가장 높은 약재 5개는 모두 국산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구팀이 한약재 1품목당 10개씩 총 600개 약재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수은 네 가지 중금속 농도를 측정한 결과 전체의 15.5%인 69품목이 허용기준을 초과했다.

또 4개 중금속 기준을 초과한 총 93개 약재 중 72개(77.4%)는 중국산으로, 중국산 한약재가 국산에 비해 중금속에 더 많이 오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